

# 한국알프스, 광주에 대규모 R&D센터

(외국계 자동차 부품 기업)

## 100억원 들여 내달 완공... 인력도 확충 R&D 투자 발판 4000억원대 매출 기대

외국계 기업인 한국알프스가 광주에 대규모 R&D 투자를 단행한다.

LG이노텍과 금호타이어 등 광주에 위치한 대기업 연구소가 잇따라 R&D인력을 타지역으로 이동·배치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한국알프스(대표 고이즈미 히로미)가 정보기업을 비롯해 자동차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를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선택하면서 관련 산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에 본사를 둔 한국알프스는 지난해 말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 남산동에 대규모 R&D센터 구축 공사에 나섰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는 연구소는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완공 예정이다.

연구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컴퓨터 주변기기, 폼프먼트, 고주파 통신편 등 기존 100명의 연구인력에 50여명의 R&D 전담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인력을 채용해 신사업 분야 교육을 진행 중이다. 1500여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10%인 150명이 R&D를 전담하는 셈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한국알프스가 대규모 R&D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과 도어모듈, 흡모바일, 파워미터 스위치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고이즈미히로미대표

10분 거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시장 선점도 주요 배경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남권 대표 공약인 기아차 광주공장 연 100만대 생산이 실현되면 자동차 전자분야의 수요도 크게 늘기 때문이다.

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르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광주와 자매도시인 일본 센다이에 R&D연구소를 둔 일본알프스는 일본 대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바 있다.

지난해 3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국알프스는 올해 전폭적인 R&D 투자를 발판삼아 4000억 대

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재섭 한국알프스 기획관리팀장은 "광주를 생산거점으로 한 지역발전과 해외수출을 통한 매출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다음달 연구소가 완공되면 개발장비와 연구인력이 신속건물로 이전하며 일부 공간은 생산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경중 광주시 전략산업과장은 "한국알프스는 지난 1987년 광주공장을 설립한 후 소니, 도요타, 볼보 등 다국적 기업과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오는 4월 정식 개관에 앞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 하반기쯤 광주공장 내에 있는 중앙연구소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할 방침이며, LG이노텍 광주공장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존 120여명의 R&D 인력을 100명 수준으로 줄였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 방산서 민수로 제어시스템 영토 확장

## 미래를 향해 뚫는다

### 엘씨텍



김영복 엘씨텍 사장(왼쪽)이 연구원들과 개발 제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어응용 및 전동기 분야 전문업체인 엘씨텍은 LG정밀(현 LG네스원)에서 분사해 1998년 설립됐다. 엘씨텍(대표 김영복)의 주력사업 분야는 군사용에 전문화된 구동메커니즘과 시험정비에 필요한 장비 등 방산 제품이다.

민수사업은 주로 어로 자동화장비 및 통신 항해장비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124억원이다. 올해 매출은 민수 시장 영역을 확대해 160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는 매출의 90%가 방산 분야지만 민수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민수 분야 매출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0년 매출 목표는 1000억원이다.

지난 2002년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한 이 회사는 이듬해부터 부품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공동으로 극초소형 아이솔레이터(ISO LATOR)를 개발했고, 수륙양용장갑차(LVT)용 무기 컨트롤러(WEAPON CONTROLLER) 및 F-4D 전투기용 회로카드 조립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07년엔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해상 구동장치용 타코메타를 개발했다. 민수 분야 제품개발도 활발하다. 엘씨텍은 지난해 부산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술협약을 체결, 오징어와 갈치, 콩치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하

## 공정개선·작업표준화 생산비·실수 크게 줄여

## 연료소모 적고 오래가는 전자식 안전기 개발 가속

는 전자식 집어등 안전기를 개발 중이다.

현재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산 집어등 안전기는 기계식으로 선박 화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연료소모가 많은 단점이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집어등 안전기는 자사의 서버제어기술을 적용, 연료를 절감하면서도 화재 위험이 적고, 집어등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식 집어등 안전기가 개발돼 조만간 보급에 나서면 어업 조업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씨텍은 현재 대경권선도산업

지원단과 로보써버 관련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항공기용 동력원료로 채택될 모터 개발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구미기업주치의센터 육성기업에 선정된 엘씨텍은 현재 핵심기술 확보, 방위산업 기반 확립, 우수 인재 확보, 고객 만족 경영 등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주치의센터 전담주치의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지난해는 공정개선 및 작업표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3000만원에 달하는 생산비용을 절감했고, 제어 시스템 솔루션 설계 어려움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복 엘씨텍 사장은 "올해는 원가절감 및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민수산업 쪽으로도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 중기청 '6국 1관 1기획단' 체제로 운영

## 지정부 이관 중견기업국·지역특화기획단 그대로 적용

중소기업청이 현재 '5국 1관' 체제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6국 1관 1기획단' 체제로 바뀐다.

중기청은 최근 인수위원회가 중기청 기능 강화를 위해 지정부 중견기업국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업무 이관을 확정함에 따라 지정부 조직을 흔들지 않고 현재 체제에 그대로 이관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기청정책국·창업벤처국·소상공인정책국·경영

판로국·기술혁신국 5국, 기획조정관 체제는 중견기업국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하 지역특화기획단)을 추가해 '6국 1관 1기획단' 체제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지정부 업무 이관으로 인력도 함께 이관될 것으로 예상, 우선적으로 조직 편제 및 사무공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에 이관이 확정된 지정부 인력 규모는 중소기업국 정원 27명,

지역특화기획단 정원 17명 등 총 44명이다.

사무 공간 확보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이관되는 인력을 규모로만 보면 중기청 1개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대규모 사무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청은 가급적 조직을 이원화하지 않고 한데 모으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내 빈 사무공간을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 건물이 포화상태여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중기청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정부 조직이 세팅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청사 내부에서 사무공간을 찾기 힘들면 청사에서 가까운 건물이라도 물색해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권식 중기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지정부에서 이관되는 조직은 다른 편제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 모바일 탄 'TCN'... 전국으로

(TCN대구케이블방송)

## N스크린 서비스

TCN대구케이블방송이 모바일 기기로 전국 서비스에 나섰다.

대구지역 케이블방송사인 TCN대구케이블방송(회장 이현태)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로 전국 어디서나 TCN 방송을 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TCN과 N스크린 서비스업체인 에브리온TV(대표 김경익)는 지난 24일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TCN케이블방송이 운영하는 지역 채널 방송을 실시간 에브리온TV를 통해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N스크린 서비스는 방송을 종전 TV수신기뿐만 보면 방식에서 벗

어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모바일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TCN은 우선 모든 시청자가 TCN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안에 TCN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게 별도의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일반 시청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채널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리미엄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태 TCN대구케이블방송 회장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판도라TV의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에브리온TV와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TCN 방송서비스는 타케이블방송사와 차별화된 미디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축구게임으로 과학 원리 배우요"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3월 3일까지 대전 본원 특별전시관에서 '체합으로 만나는 스포츠·과학 특별전'을 개최한다. 스포츠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축구나 농구, 야구, 탁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놀이 및 체험전시물 30여점을 선보인다.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지난 26일 손으로 움직이는 축구놀이를 하고 있다.

#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분양 '날개'

## 기계메카트로닉스업종 경쟁률 12 대 1 '최고'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산업용지가 기업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 EZ)이 최근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총 8필지 14만 3611㎡에 대한 분양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부 업종은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기·전자업종은 총 5개 필지 7만 7657㎡에 대해 1개 업체가 3필지 4만 4789㎡를 신청했다. 자동차 및 기계메카트로닉스업종은 3개 필지 6만 9954㎡에 대해 12개 업체가 28만 4097㎡를 신청해 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가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분양된 산업용지는 전기·전자업종은 3.3㎡당 92만~99만 원이며, 자동차 및 기계메카트로닉스업종은 75만 원 수준이다. 3년 전인 지난 2009년 분양된 대구 성서5차 산업단지 평균분양가(130만원)보다 저렴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담당 상을 노린 투기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현장실사 등 면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크노폴리스입주심의위원회는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고용현황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술력, 사업성 등을 중점 심의하기로 했다.

정달화 대구경제자유구역청 개발1부장은 "이번 분양 결과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유능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입주시켜 테크노폴리스를 경제자유구역 선도지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 KAIST 학생 10명 중 9명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KAIST 학부생 10명중 9명은 학생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총학생회와 학부생 9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한 결과 이사회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대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9.3%였다. 필요없다는 답변은 8.2%였다.

신임총장이 갖춰야할 능력으로는 민주적 대학운영 능력과 비전제시능력을 각각 34.3%, 32.3%의 학생이 꼽았다. 또 신임총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학내갈등 해결(30.1%), 경쟁위주 학사제도 완화(28.1%) 등을 지적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 "향후 전자부품이 전기차 원가 70% 차지"

## 디지털 전기차 워크숍서 양승완 현대차 이사 주장

전자자동차의 전자부품 원가 비중이 조만간 전체 비용의 7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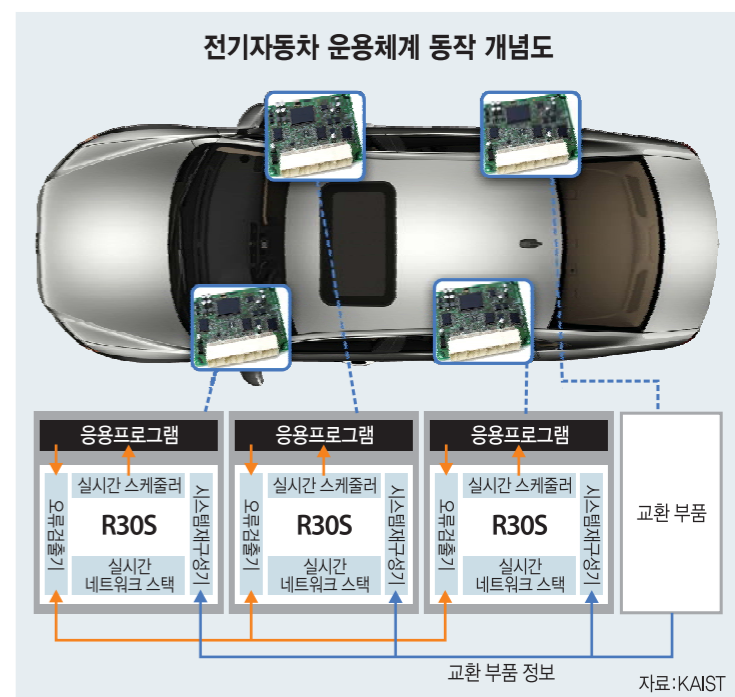
전자자동차는 안전문제 때문에 '가전제품'은 아니어도 조만간 그에 준하는 '전자 제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에서 관심을 끌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KAIST P3디지털센터(소장 권인소 교수)가 주최, 주관하고 한국로봇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자자동차산업협회, 전자신문이 후원한 최근 '2013 디지털 전자자동차 기술워크숍'에서 양승완 현대차 이사

는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이사는 "자동차의 전자화를 친환경 규제 대응과 운전자 가치 증대의 연장선으로 본다. 전기차에서 전자부품 원가 비중이 전체의 70%가 될 것"이라며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대학 연구소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이어 강연에 나선 이정용 레오모터스 대표는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소개하며 "5년 내 출시할 전기차



는, 1회충전으로 1200km 주행가능하고 배터리는 kg당 2kWh는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순태 KAIST 교수는 개인용 플러그인플레이 전기차를 제어하는 ECU(전자제어장치) 및 차량량 네트워크의 원활한 동작을 보장하는 운용체계(R30S)를 소개했다.

이 운용체계는 ECU 내부 및 통신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

고 실시간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또 부품이 새로 교체됐을 때 이를 인지하고 부품 간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밖에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은 기술·산업과 정책의 융합을 강조했다. 윤성기 KAIST 교수는 전기차 경쟁력화를 위한 셀 구조물 최적 설계기법 등을 소개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 기업 주도형 클러스터 '비즈클럽' 오늘 출범

## 대전시, 창립 교류회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산학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비즈클럽 창립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비즈클럽은 기업 성장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주도형 클러스터다.

유망 품목이나 아이템 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 간 혁신 주체인 산학연이 향후 자발적으로 클럽을 운영한다.

총 14개 분야 비즈클럽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콘텐츠, 자동차(로봇), 과학기기, 나노기기·정밀가공, 의약바이오, 바이오소재 비즈클럽 등이 있다. 대전시는 향후 광역선도산업, 신

성장동력산업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대전 산업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야 비즈클럽을 추가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류회에서 한선희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2013년 대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향'을, 박준평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이 '2013 대전 산업 인덱스'를 각각 발표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